

나노, 글로벌 촉매기업 도전장

세라믹 필터 상주공장 가동 ... 2012년까지 2·3차 라인 건설

촉매 생산기업 나노(대표 신동우)가 글로벌 촉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나노는 9월23일 경상북도 상주에 세라믹 필터 공장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갔다. 2008년 5월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09년 3월 현대로템과 청리일반산업단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들어가 최근 공장을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로 바꾸는 필터인 탈질촉매를 제조해 대형 발전소나 소각로, 선박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다.

또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만 보유한 세라믹 하니컴 촉매 제조기술을 100% 국산화했고, 제조장비와 원료도 국산화함으로써 짝값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로 200억원을 들여 세라믹 필터와 필터 재생설비를 갖추고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2, 3차 생산라인을 구축해 2013년에는 세계 2위의 세라믹 촉매 공급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나노는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세계적인 환경산업 지원 정책에 부응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청리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나노 상주공장 준공식에는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를 비롯해 서상기·성윤환 국회의원, 이정백 상주시장, 김성태 상주시의회 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3>